

전남 해역 참조기·멸치·민어 씨가 마른다

남획·불법어업으로 급감... 지난해 어획량 15만6000t 매년 감소 어획량 17만t 회복 총력전... 道, 어업관리 등 3개분야 과제 추진

전남지역 바다에서 참조기, 멸치, 민어 잡기가 어려워졌다. 남획·불법 어업 등으로 전남 연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대책 뿐 아니라 바다를 논밭으로 삼는 '기르는 어업' 양식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남도가 내놓은 '2019년도 수산 자원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연근해에서 잡힌 생선은 15만6000t에 그쳤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990년 29만7000t을 기록한 이후 18만t(2000년)→17만t(2010년)→13만4000t(2015년) 등 매년 감소세다.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1990년만 해도 전국 생산량(154만2000t)의 2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전국 생산량(101만2000t)의 13%까지 떨어졌다.

어종별로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첫새우는 30%(2010년 1만5860t→2018년 1만664t)까지 급감했고 참조기는 33%(2010년 2만534t→2018년 1만3715

t), 멸치 30%(2010년 4만3475t→2018년 3만448t), 민어 30%(2010년 2203t→2018년 1537t), 참문어 34%(2010년 4871t→2018년 3224t) 등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물고기 개체 수가 줄게 된 주요인으로는 '남획', 어장환경 악화 등을 꼽고 있지만 전국적인 감소세보다 전남지역 감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어업 생산량은 1990년과 비교해 지난해 34.4% 감소한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47.7% 감소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17만t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어업관리 강화 ▲수산자원 서식 환경조성 ▲어업인 주도 자율관리 어업 등

3개 분야로 나눈 10개 추진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총어획량허용량제도(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지원체계 전환,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어린물고기 보호 등 어업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산자원관리수면·보호수면 지정·관리 강화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수산자원보호 공감대 확산 등 수산자원서식 환경조성에도 집중한다.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어업인 주도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 2전 영암 국제경주장서 6월 2일 열린다

모터스포츠 입문 아마추어 대회 2019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 2전이 오는 6월 2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2019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는 타임 트라이얼, 드리프트, 가상 레이스 등 8개 클래스에서 다채로운 경주가 펼쳐진다.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발굴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지뢰 제거와 기초발굴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아열대 작물 생산·소득기반 구축 적극 나서야

제4차 전남미래농정포럼,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책 모색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데 따른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책을 모색하는 제4차 전남미래농정포럼이 29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전남도가 농업 기후변화 관련 국내 최고 권위자를 초청해 주제·사례 발표 지정토론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

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관행 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전략"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는 기후의존적인 농업 부문에 이상기상 피해, 재배적지 변화, 유통병해충 피해 등 상당한 파급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기술 수용 및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체계적 중앙기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동모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은 이상기상에 대한 식량·원예 등 작목

별 피해 경감 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 소장은 이날 "전남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 소득에 도움이 되는 아열대작물을 선 정해 육성하고 있는 사례 등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 소장은 아열대 기후화로 바뀌면서 소득화 유망 작목으로 여주·오코라·아트조크·인디언시금치 등 채소 10종, 망고·아페모야·파파야·패션프루트 등 과수 8종을 선정해 재배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해남 북평면에서는 2000㎡에 걸쳐 오코라를 재배, 지난해 6t을 생산했고 화순군 능주면에서는 아열대 채소 암반이 재배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 조직위원회는 과도한 드라이버 경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2전부터는 '코스 이탈 페널티'를 강화한다.

드라이버가 코스 이탈을 할 경우 해당 랩 기록과 다음 랩 기록까지 삭제된다. 이때문에 어느 한 선수의 압도적 독주 상황보다는 여러 선수의 각축전이 예상돼 흥미진진한 격돌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회와 함께 내 차로 가족과 함께 서킷을 돌아보는 '다 같이 돌아 경주장 한 바퀴' 이벤트도 선보인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서킷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코너에서 슬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드리프트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문의는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 운영팀(061-288-4207)으로 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본사인사
 나명주 : 편집부 문화2부 부장
 최현배 : 편집국 사진부장
 (5월 30일자)

'경력단절'서 '경력잇기'로

전남 여수서 일자리박람회... 538명 일자리 찾아

전남 여성 538명이 29일 여수에서 열린 2019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에서 일 자리를 찾았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 행복의 전남, 여성일자리가 희망이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2019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가 29일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에는 인재채용관 등 5개관을 운영하고, 230여 구인업체가 참여해 구직 희망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538명이다. 박람회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와 1대1 현장면접을 했다. 일부 기업은 이력서를 접수해 박람회 이후 면접을 통해 채용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나의 삶은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삶이 결코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잇기'와 '경력이동'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에 따라 전체 박람회 운영은 크게 5가지 주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과 정보를 제공했다. ▲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직접 면접 기회를 제공해 당일 채용을 지원하는 인재채용관 ▲여성 친화적 창업 아이템 발굴 컨설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창업관 ▲유망직종 소개, 직업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정보관 ▲직업 검사 도구를 활용한 적성검사와 진로 상담을 하는 취업컨설팅관 ▲경력단절여성의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 취업서비스를 하는 윈스플 취업준비관을 중심으로 총 60여 부스를 운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박람회에 직접 참석해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인턴사업,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여성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순천과 여수, 상반기 2회에 이어 하반기 10월 16일 나주시, 31일 목포시, 총 4회에 걸쳐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차례의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75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현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한국은 이제 환율조작국 요건 3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는 만큼, 오는 10월 다음 환율보고서 발표 때에도 한가지 요건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대상국들을 평가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번에 일부 강화된 3가지 요건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7%로 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1개에만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180억 달러로 떨어져 무역흑자 요건에서 벗어났다. 화학제품과 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외환시장 개입도 지난해 1~3월에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규모도 GDP 대비 0.2%, 29억 달러 매도에 불과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임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급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음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죽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음 5억8천
- 광산구 북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동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 가 건 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방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 급 물 건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감성가 50%. 해남군 산이면 금성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성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임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원벽 팬션출음 7억2천

문의 0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성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층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인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학길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